

CJ, “제넥솔” 위암 치료제 승인

식약청, 임상시험 반응률 48.5% … BMS의 Taxol 대체약품 기대

CJ가 유방암 등의 치료에 처방되는 항암제 <제넥솔(Genesol)>이 위암 치료제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.

CJ는 <제넥솔>이 최근 서울대병원 등 7개 기관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 위암에 대한 반응률(투여 후 종양 크기가 50% 이상 줄어든 환자 비율)이 48.5%에 달했다고 주장했다.

식약청의 승인으로 <제넥솔>은 기존 유방암, 비소세포폐암, 난소암에 이어 위암이 적응증에 추가돼 경쟁약품인 미국 Bristol-Myers Squibb(BMS)의 <탁솔>과 같은 범위의 적응증을 갖게 됐다.

CJ는 “제넥솔로 2003년 국내 항암제 수입 1위 제품인 탁솔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게 됐으며, 약가가 탁솔에 비해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<제넥솔>은 1996년 삼양사가 개발해 CJ가 위탁 판매하고 있으며, 2003년 매출액이 38억원에 달했다.

<Chemical Journal 2004/03/05>